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났다고 있습니다.
 인도불교 돕기 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인도돕기)

불교문화 '상품'으로 뜬다

조계종, 유·무형 문화 '...산업센터' 설립해 개발 계획
 의·식·주 전반에 禪 등 불교이미지 응용제품 속속 선보

발우를 개량한 식기로 식사를 한 다음 다기(茶器)잔처럼 만들어진 용기 뚜껑을 열고는 녹차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바른다. 선(禪)의 이미지에 디자인된 옷을 입고 컴퓨터 불교 게임을 즐긴다. 반야심경 독경소리가 울리는 휴대폰을 받고는 친구들과 함께 불교 설화 애니메이션을 보러 간다. 집에 돌아와서는 단순하고 간결한 선방 이미지에 불교전통문양으로 디자인된 침구와 가구로 꾸민 방에서 휴식을 취한다.

다.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오늘날, 불교전통문화의 '콘텐츠 개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마침내 '불교문화상품' 개발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스님은 14일 "불교전통문화산업센터를 건립해 불교전통사상을 산업화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 유·무형의 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해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문화 등의 유형문화는 현대적 이미지와 맞춰 '상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계종은 템플 스테이아, 사찰 수련회, 연등축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문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대중성을 확보하는 일. 바로 이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을 불교전통문화산업센터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불교전통문화산업센터 건립 예산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10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3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7월 발족한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몇 차례의 전시회와 함께 '불교문화 상품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여는 등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 불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캐릭터로 재창조하거나, 단청문양의 산업화, 황룡사지 등 불교문화의 입체영상 복원, 게임, 음반 등의 '상품화'는 이미 몇몇 회사와 개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불교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상품화는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불교문화상품을 선택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문화가 곧 '힘'인 시대에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신도회 나아갈 길 주제
 통합추진위, 25일 세미나

조계종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공동대표 백창기 선전규)는 25일 오후 3시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신도운동 50년을 통해 본 신도회의 지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통합 신도회의 정체성과 방향 수립을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김광식 부총대 교수의 발제와 손안신(전국신도회 부회장), 임동현(중앙신도회 기획실장), 박유근(조계종포교원 신도과장) 씨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통합추진위는 세미나를 그동안 신도회가 종단내에서 해 온 역할을 조망하고 신도조직의 사업과 주요 활동을 평가, 향후 전망을 수립하는 자리로 삼을 계획이다.



연꽃 보러 오세요
 서울 봉림사에서 17일 시작된 '제1회 서울 연꽃축제'. 8월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기간에는 영산재 및 다도시연, 연잎차시음, 연꽃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사진=박재원 기자

법원, 새만금공사 잠정중단 결정

환경단체들 환영, 김 농림장관 항의 사퇴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금지 결정에 따라 본인소송 선고 전까지 전면중지된다. 관련기사·인터뷰 3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새만금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대표 3명이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일단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지시켜 달라"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본인소송 선

고 전까지 새만금 사업을 중지하라"는 집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만금 개발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이지만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해 농업용수로 가능한 목표 수준인 4급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행위가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감안할 때 과다한 희생과 비용이 들어가는 등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15일 환영논평을 통해 "간척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필연적인 환경문제를 제기해온 지역 주민, 환경단체, 종교계의 일관된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본다"며 "잠여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16일 김영민 농림부 장관이 사퇴했고, 전라북도측도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위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해복구 요사채도 포함 마땅

조계종, "스님들 주거지... 대상서 제외는 부당"

조계종이 최근 재해복구사업 대상에 요사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계종은 문광부와 행자부에 보낸 공문에서 "요사채는 스님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생계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시설에 대한 재해구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찰을 이재민을 수용하는 시

설로 규정해 놓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지정문화재인 3층 석탑이 훼손되고 요사채가 반파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남원시에 수재민 특별위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요사채가 자연재해대책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제주: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개신교 목사가 종교를 초월해 암 투병중인 스님의 쾌유를 빌원하는 '사랑의 음반'을 제작할 계획이어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제작자는 임의진 목사(37·전남 강진 남녘교회)이고 수혜자는 일철 스님(49·광주 중심사 주지)이다. 임목사가 이런 아름다운 발심을 한데는 일철 스님과 함께 2년 전부터 환경 문화운동인 '무등산 풍경소리' 운

동을 펼쳐온 인연때문이다. 두 사람은 중심사 주차장에 '문화마당'을 만들고 지난해 7월부터 그곳에서 '무등산 풍경소리'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11회째를 맞

은 지난 18일 '안치환 콘서트'에서 원래는 이 두 모반이 공동사회를 보기도 예정했지만 스님의 건강 때문에 참석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리, 김두수씨 등이 부른 자연 예찬의 노래를 한데 모아 편집했다. 특히 한보리씨는 이번 음반을 위해 새로 두 곡을 작곡했고, 시인 박남준씨는 시 낭송을 했다. 곁에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은 이 두 도반의 아름다운 우정에 눈시울을 적신다. 이번 음반은 8월 중순에 1천장 정도로 한정 판매되며 수익금 일부는 일철 스님의 치료비에 쓰이고, 나머지는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에 전달된다. 김주일(취재2부 기자)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불교국가 범우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50년만의 최악의 폭우로 실의에 빠진 스리랑카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800여명의 인명피해와 50만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국가 스리랑카 국민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후원: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현대불교신문, 성금 보내 주실 곳: 총무원 모금 계좌 -국민은행 023501-04-004943 (재) 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55568 (재) 불교중앙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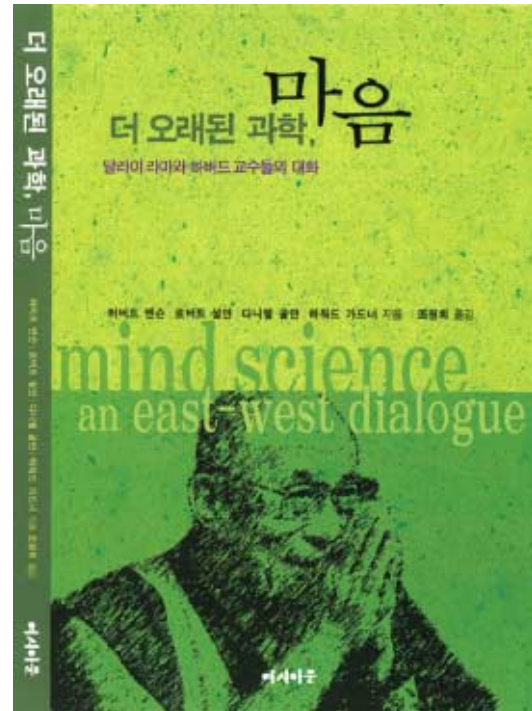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한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점으로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적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계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투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하버트 멘슨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가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 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하버트 멘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 법보시 연락은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